로컬뉴스

전북은행, 군산시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워 위생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은행이 이에 동참해 착한 기부에 나섰다.

전북은행은 4일 군산시에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 전달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위생용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기홍 전북은행 군산시청지점장은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위생용품을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선유도 해수욕장 썸머페스티벌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아름다운 섬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2016 선유도해수욕장 썸머페스티벌'이 열린다.

군산시가 주최하고 선유도 관광진흥회와 선유도통합청년회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6일 저녁 7시부터 벨리댄스, 초청가수 축하공연, 해변가요제, 행운권 추첨, 불꽃놀이 등 다양한 이벤트로 진행된다.

선유도관광진흥회 정종국 회장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개통과 더불어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선유도를 전국에 홍보하고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선유도를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성우 군산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여름 밤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풍수해·폭염대비 안전캠페인

4일 익산역 앞 광장에서는 익산시,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에너지서비스, 익산LP가스협회, 익산시 자율방재단, 안전모니터봉사단, 원광대학교 E-SCV 봉사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의식 강화 캠페인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대비 안전관리 수칙 등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안전수칙 홍보물과 홍보부채를 배부하는 등 시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캠페인 활동이 전개됐다.

캠페인 후에는 익산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익산지사가 합동으로 여산면 신막마을과 유점마을에 홀로사는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세대를 찾아 전기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종업원 소방안전교육 범령 강화

군산소방서(서장 유우종)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또는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법령이 2016년 1월 21일부터 (최초 1회→2년 회 1회) 강화 개정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영업 전 최초 1회만 받았지만,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이수하면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450-024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청소년들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 바람직한 진로 선택에 도움

군산 청소년상담센터 '호응'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진로 선택과 준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상담센터의 2016년 상반기 상담내용을 보면 군산지역 청소년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았으며, 대상별로는 중학생이 상담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상담 1,368건 중 학업·진로가 288건(21%)으로 제일 높았고, 일탈 및 비행이 255건(18%), 정신건강 252건(18%), 기타 순이다.

대상별로는 중학생 397건, 고등학생 336건, 초등학생 261건, 학부모 229건, 이 밖에 근로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상담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았다.

상담결과에 따르면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해 상담실 문을 두드린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문제의 선행 요인 중 가정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바 이러한 학부모의 상담 참여는 앞으로 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상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담센터는 진로프로그램 '내 꿈에 날개를 달자', '내 꿈은 내가 만든다', '꿈을 향한 징검다리' 등을 실시해 청소년 개인에게 전 생애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진로 의사결정과 진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로의식 유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청소년동반자 사업을 통해 평소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직접 방문하기 힘들었던 96명의 중·고·위기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았으며, 상담을 받은 89.3%가 문제해결에 구체적이고 실질적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청소년동반자와 상담을 한 내담자는 "처음에는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외롭고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 친구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우고 노력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친구도 생기고, 진로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 있어서 웃으면서 생활하게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군산시 가족청소년과 전순미 과장은 "청소년이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순항중'

금마면 서고·동고도리 일원 대상 2015년~2018년까지 한시적 추진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고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익산시는 금마면 서고도리 및 동고도리 일원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은 건축비의 2/3까지 지원하며, 지원한도액은 순수목조 한옥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원, 한옥건축양식으로 한옥을 지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담장·대문을 토담 등 전통담장으로 할 경우에도 최대 2,000만원, 고도의 이미지에 맞춰 가로변에 있는 건축물의 외관정비를 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2015년도 5월부터 시행된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은 홍보와 지침 마련 등에 따른 시간이 걸려 사업초기에는 신청이 저조했으나, 16년도 들어 사업신청이 급격하게 상승곡선을 그리며 증가하고 있다.

올해 현재 한옥 12건, 담장 및 대문 5건이 지원결정 되어 한옥 1건이 준공되고 4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7건은 8월 중 착공될 예정이다.

또한 한옥 9건, 담장 9건이 설계 중에 있어 8월 중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마면 주요도로변 상가 등에 대한 '가로변 외관 정비를 위한 경관기본설계 용역'이 9월 중 완료되면 금마면 고도지구 내 지역 상가와 상가주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가로변 외관정비 사업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 1호점 건축주 장씨는 "타지에 있다 노년에 다시 고향에 내려와 고향집에 살려다 보니 집이 너무 오래돼 걱정이 많았는데, 익산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고 한옥집을 다시 지을 수 있어 굉장히 만족스럽다"며 "이런 사업이 지속되어 우리 마을이 고도의 이미지를 회복했으면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옥 30채 이상 신청을 받아 준공할 계획으로 금마가 갖는 고도 익산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제245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홍보

군산시가 '제24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4일 군산여객터미널에서 펼쳐진 캠페인에는 군산시, 군산소방서, 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군산도시가스(주), 안전보건공단, 농림축산검역본보 호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전모니터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해 주민행동요령과 건강관리 3대 수칙 등을 홍보했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가정, 직장, 학교, 산업·건설현장 등에서 행동요령과 폭염환자 발생시 응급처치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함께 배부해 캠페인 효과를 더욱 높였다.

임춘수 군산시 안전총괄과장은 "폭염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행동요령과 물놀이 사고 대처 방법을 집중 홍보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안전위협요소는 안전신문고 (www.safepeople.go.kr)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는 시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 안전의식을 개선하고자 매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

MAKE Things 과학교실 운영

군산대학교 새만금창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 생활과학교실이 5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MAKE Things 과학교실을 운영한다.

MAKE Things 과학교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김승환)이 주관하며 복권위원회, 군산시(시장 문동신), 부안군(군수 김종규), 서천군(군수 노박래)의 후원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MAKE Things 과학교실은 서천군 거주 초등학생들과 함께 진행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실은 컴퓨터 없이 진행하는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알고리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논리적 절차)과 프로그래밍 과정을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인 앤트리를 이용, 센서보드 및 햄스터 코딩로봇을 제어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유수창 새만금창의융합센터장은 "창조경제 시대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코딩교육은 필수이다"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알고리즘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활동에 대한 기반이 확립될 것이고, 이러한 활동들이 나아가 창의·융합 인재양성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코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원광대, 사회경제의 동향과 전망 세미나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LINC사업단과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먹거리지속가능성연구단 이 공동 주최한 '2016 전북 사회적경제의 동향과 전망 세미나'가 지난 2일 원광대에서 열렸다.

세미나에는 원광대 LINC사업단 원도연 기업종합지원센터장과 김흥주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 박맹수, 김진병 교수 등 내부인사와 이현민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장, 임형택 익산시의원, 최영두 익산시청 과장을 비롯한 도내 사회적경제 분야 연구자 및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의 사회적경제 사업 동향 분석과 방향설정을 목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2012년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천학문적 관심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원광대가 창조경제 및 사회적경제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 참여형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1부 원도연 센터장의 행사취지 설명에 이어 2부 주제발표에서는 이현민 전북마을만들기협력센터장 등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의 흐름과 과제', '사회적경제에서 공동체의 의미와 마을사업의 경과'를 발표하고, 원도연 기업종합지원센터장이 '원광대학교 사회적경제 대학원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3부 종합토론은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정원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임형택 익산시의원, 나영삼 전주시청 전주푸드 담당, 청년활동가 임승필 씨 등 5명의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대학과 지역 연계방안, 인력양성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해경, 남방파제 무단출입 낚시꾼 5명 적발

지난 6월 지정된 군산항 남방파제 출입통제장소에 대해 해경이 단속카드를 빼들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4일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 함씨(49·인천) 등 5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주변 6개소와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에 대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해양사고의 예방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군산항 남방파제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고 구조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해경은 지난 6월 1일자로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하지만 해경의 계도와 홍보활동에도 안전펜스를 넘어 테트라포트(TTP) 사이를 활주하는 위험천만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군산항 남방파제에 대해서는 무단출입이 근절될 때까지 불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강중근 안전관리계장은 "안전을 위해 시행한 조치인 만큼 자발적으로 준수해 줄 것으로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정신건강증진센터, 나봄너봄 생명사랑 공모전

익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세계 자살예방의 날(매년 9월 10일)을 기념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나봄너봄 생명사랑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의 실천을 주제로,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 '생명존중', '생명사랑', '희망메시지' 등의 내용이 포스터, 웹툰, 슬로건 중에 담겨 있어야 하고, 작품규격은 포스터는 4절 또는 B3용지(표어 필수), 웹툰은 20컷 이상, 슬로건은 20자 내외로 자유롭게 제출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7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이며 생명존중 및 생명사랑을 실천하는 익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작품 제출은 익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www.iksanmh.or.kr)에서 공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작품과 함께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한 작품 중 17점을 선정하여 8월 말 익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통보 후, 오는 9월 7일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